

민주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 한목소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당내, 청와대 보수 후 사용→임기내 이전 거론...실제 이전, 개헌 ‘관문’

이재명,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김경수·김동연 증세 거론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들이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형발전의 심장 충창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수 후보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및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동연 후보 역시 그동안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

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실제로 김경수 후보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의 소굴에서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는 건 내란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세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청사를 우선 사용한 뒤 문재인 정부 때 썼던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그림자’가 짙고, 정부청사도 장소가 협소해 일부 부처가 추가 이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논의 자체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이 후보는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 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충남(디스플레이 산업)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인제 양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하겠다”며 “착각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 생태계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 “재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파 통합’은 전날 출범식에서 일부 17구 2주택자 면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금융·외교·방산 등 5개 분야 대선 공약화 논의

안도걸 의원, 분과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광주 동남구)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 미래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은 핵심 공약 수립에 나섰다 17일 밝혔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 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 등 5개 전략 분야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과제 및 공약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는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와 관련, “그동안 위원회 각 분과별로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굵직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예산업·도선업,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

주철현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7일 예산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산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일·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산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대선 경선 후보 8명(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건기자단>

국힘, 막 오른 경선 레이스 ... 민심·당심 잡기 총력

김문수·홍준표·나경원 등 8명 조추첨...19~20일 조별 토론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후보의 민심·당심 잡기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1차 경선에서는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의 후보가 네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이중 여론조사 상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는 4강 진입을 자신하면서 최종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김구 선생 국적’ 등 자신의 과거 발언과 행보 등에 대한 방어선을 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론’을 두고 다른 후보들과 달리 열린 태도를 유지하며 한 대형 지지층까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제7공화국 개헌, 초격차성장 50조원 투자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책으로 민심을 잡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의원의 당협위원장 등과 접촉면을 늘리며 당심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한 후보는 탄핵을 반대했던 다른 주요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두고도 ‘윤심(尹心)’보다

민심’이라며 탄핵에 찬성했던 민심을 더욱 끌어모으고 있다.

나경원·안철수 후보는 우선 4강에 안착한 뒤 지지세를 키워 양자 대결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나 후보는 보수층, 안 후보는 중도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미래청년’, B조는 ‘사회통합’이다. A조는 오는 19일, B조는 20일 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전통금 확대!

✓선원을 고용하는 모든 어선은
2025. 1. 1.부터 어선원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가입대상 어선이 어선원보험
✓가입신고 미이행시 징수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